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8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04.20원 (-2.10원)

KOSPI
5,494.78 (+44.45, +0.82%)

KOSDAQ
1,063.73 (-10.64, -1.02%)

국고채 10년 금리
3.754 (+0.02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실전 퀀트	'환율 조정 OPM'으로 발굴한 매크로 저항주 [이경수]
신흥국 전략	미국 의약품 관세가 인도에 미칠 영향 [김근아]
해외크레딧	KP: 4월, 전략적 발행 재개와 유통시장 확산 여부 점검 [하형민]

기업분석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355조원으로 상향 [김록호]
CJ프레시웨이	1Q26 Pre: 온라인 채널 확대 위한 마케팅비 지출 [심은주]
LG에너지솔루션	EV 부진 지속 [김현수]
DL이앤씨	무난한 1분기 [김승준]
GS건설	상반기 1만세대 분양 페이스 [김승준]
시프트업	신작 공개까지 대기 [이준호]
LG전자	본업의 정상화에 로봇 모멘텀 추가 [김민경]
롯데렌탈	NDR 후기: 성장 전망 이상 무 [안도현]
미래에셋증권	1Q26 Pre – SpaceX 가 끝이 아님 [고연수]
슈프리마	AI 보안 플랫폼으로의 도약, 성장은 이제부터 [권태우]

산업분석

통신 장비	스페이스X가 통신산업에 진출한다면? [김홍식]
자동차	완성차 1분기 프리뷰: 로봇 및 자율주행 모멘텀이 중요 [송선재]
미디어	15개 분기 연속 하락세인 TV광고 [이기훈]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삼성증권, 한미약품, 엔씨소프트, CJ제일제당, LX인터내셔널, 리노공업, 케이엠더블유,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환율 조정 OPM'으로 발굴한 매크로 저항주

실전 퀀트 | 2026.04.08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한국 1Q26F OP 평분기대비 2배가 넘는 사상 최고 이익 속에서 숨은 실력자를 찾아서…

고환율이 부담되는 종목 중 '가격 전가력'이 뛰어난 종목군 스크리닝

- 반도체 너머의 알파: '환율 조정 OPM'으로 발굴한 매크로 저항주
- 국내 상장기업(코스닥 포함)의 1Q26F 영업이익은 약 155조 원으로 YoY +108%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할 전망
- 반도체 섹터의 영업이익이 90조 원(YoY +531%)으로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65조 원(YoY +9%)에 그치며 상대적 정체 국면
- 이러한 이익 양극화의 이면에는 '고환율'이라는 양날의 검이 자리 잡고 있어, 원/달러 환율과 반도체 제외 이익증가율은 음의 관계
-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반도체에는 강력한 '환차익 보너스'를 제공하며 이익 수치를 부풀린 반면,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거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나머지 대다수 기업에게는 마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비용 쇼크'로 작용
- 따라서 지금은 기록적인 총량 수치에 환호하기보다, 환율이라는 매크로 변수가 만들어낸 '착시'를 걷어내고 기업 본연의 실력을 가려내는 정교한 스크리닝이 필요(원/달러 환율 안정화 대비)
- 이에 필자는 명목상의 이익률이 아닌, 환율 효과를 제외한 '조정 OPM'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 제시
  - 매출(Top-line) 조정: Adj. Revenue = Nominal Revenue / (1 + △ FX x 수출비중)
  - 영업이익(Mid-line) 조정: Adj. OP = Nominal OP - (매출 증가분 x OP Leverage)
- 2026년 상반기 고환율(+9% YoY) 환경으로 명목 OPM(예상치)보다 조정 OPM(FX Neutral)이 높고 YoY OPM 개선세가 뚜렷한 기업은 환율이라는 '매크로 역풍'을 오직 기업 본연의 실력(판가 전가 및 물량 성장)으로 정면 돌파했음을 의미
- 이들은 향후 환율 및 유가 안정 시에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잠재력 충분하다는 판단
- **제주항공,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롯데칠성, SGC에너지, S-Oil, SK오션플랜트, 오리온, KT&G 등**
- 위 종목들은 현재 고환율이라는 강력한 비용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판가 전가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실적이 개선
- 향후 환율 안정 시, 억눌렸던 마진 스프레드가 폭발하며 강한 성장 부각될 것

2026년 4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미국 의약품 관세가 인도에 미칠 영향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의약품 관세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가 부과되며, 대형 제약사에는 120일, 중소 제약사에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한국·EU·일본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가 있는 국가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국 정부와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한 경우 20%, 최혜국대우(MFN) 가격 협약과 온쇼어링 협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도 대미 수출 90% 차지하는 제네릭 면제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함

인도의 2025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97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는 인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작지 않은 변수다. 다만 대미 의약품 수출의 약 90%가 제네릭이고,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가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제약사들의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발표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Nifty Pharma 지수도 장중 4% 하락했는데, 이는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면제가 1년 후 재검토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관련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고도화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정부는 2월 발표한 FY2027 예산에서 제약·바이오를 전략 육성 산업으로 제시하고, 고부가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제네릭 중심의 수출 방어력은 약해지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인도 제약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미국 시장 의존도 분산 여부가 중요할 것

결론적으로 현재 인도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제네릭 중심이기 때문에 금번 관세 정책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미국 내 제네릭 수요가 커 관세 부과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이번 면제를 한시적이라 명시한 만큼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인도 제약사들이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미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 중장기 부담 역시 상존한다. 향후 인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얼마나 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4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크레딧

KP: 4월, 전략적 발행 재개와 유통시장 확산 여부 점검

Global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월: 금리 충격 속 우량물 선호

3월 KP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 불안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 2월 강세를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진행되었다. KP 달러채 스프레드는 2월 말 대비 7.0bp 확대되며 아시아 IG와 유럽 IG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국책은행/공기업물 4.4bp 대비 민간기업물이 12.9bp 확대되며 상하위 그룹 간 차별화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다만, 3월 KP 시장을 움직인 주된 변수는 스프레드보다 금리였으며, 미국 금리 급등이 KP 절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듀레이션과 절대금리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3월 KP 유통시장에서 우량 공공부문의 상대적 방어력과 민간기업 신용물의 높은 민감도가 재확인되었다.

3월 들어 중단됐던 공모 KP 발행은 미국-이란 간 긴장이 완화된 틈을 타 한국석유공사와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월말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은행, 현대캐피탈아메리카까지 공모 재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3월 KP 전체 발행 규모는 약 53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3월 패턴 중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계 G3 통화 채권 발행은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작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다. 즉, 아시아 우량물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KP가 투자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리 충격 속에 우량물 선호가 강화되고 KP 발행시장 기능이 단계적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 발행 재개와 유통시장 확산 여부 점검

4월 이후 KP 시장은 공모 발행 재개를 넘어, 최근 발행물이 유통시장 강세와 KP 지수 스프레드 축소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4월 만기 물량 부담이 여전히 변수인 가운데, 최근 우량 발행주체의 시장 접근성과 수요 확보 여력은 확인됐다. 3월 이후 발행물의 발행 단계에서의 금리 조정력은 과거 비교 사례('25년 초: 높은 대내 불확실성 배경, '26년 초: 최근 KP 강세의 고점) 대비 강했다. 발행액 기준 가중평균 최종 가산금리 변화는 -33bp로 과거보다 조정 폭이 컸고, 발행 후 5영업일 후 스프레드 역시 평균 -2.9bp로 일부 유통시장 반응이 확인됐다. 다만, 대내 불확실성 높았던 2025년 초와 비교 시 강한 축소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유통시장 강세 확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KP 지수 측면에서는 시장 재개 이후 국책/공기업 스프레드의 안정이 먼저 나타난 반면, 민간기업물 스프레드까지 동반 축소가 확산된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장 전체 비중 확대보다는 높은 절대금리 환경에서도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국책/공기업의 상위 그룹과 우량 시중은행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적절하다.

Analyst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 Review

삼성전자 (005930)

2026년 영업이익 355조원으로 상향

BUY (유지)

목표주가(12M)	300,000원
현재주가(4.07)	19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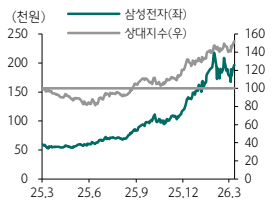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94.78
52주 최고/최저(원)	218,000/53,000
시가총액(십억원)	1,163,208.9
시가총액비중(%)	25.70
발행주식수(천주)	5,846,278.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916.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426.1
외국인지분율(%)	48.44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64
국민연금공단	7.7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53,858.7	621,460.0
영업이익(십억원)	227,316.5	267,647.4
순이익(십억원)	189,203.3	222,781.6
EPS(원)	27,819	32,872
BPS(원)	91,609	123,53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00,870.9	333,605.9	667,576.0	778,052.6
영업이익	32,726.0	43,601.1	354,780.4	450,724.7
세전이익	37,529.7	49,481.5	359,529.3	455,473.6
순이익	33,621.4	44,261.0	282,502.8	357,891.7
EPS	4,950	6,564	41,942	53,134
증감율	132.29	32.61	538.97	26.68
PER	10.75	18.27	4.60	3.63
PBR	0.92	1.87	1.85	1.24
EV/EBITDA	3.60	7.67	2.30	1.22
ROE	9.03	10.85	50.44	41.17
BPS	57,930	63,976	104,281	155,780
DPS	1,446	1,668	1,668	1,668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1Q25 잠정실적 Review: 이익률 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26년 1분기 매출액은 133조원(YoY +68%, QoQ +42%), 영업이익은 57.2조원(YoY +755%, QoQ +185%)을 기록했다. 메모리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DRAM과 NAND 모두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DRAM은 제한된 공급 및 재고로 인해 출하는 전분기 수준이었는데, 가격이 81% 상승하며 영업이익률도 8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NAND b/g는 7% 증가, 가격은 82%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6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이 53조원을 초과, System LSI 및 파운드리 부문은 영업적자 1조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MX/NW 부문 2.9조원, 디스플레이 0.7조원, VD/가전 0.3조원, Harman 0.3조원으로 추산한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국내 거래선의 신모델 출시와 더불어 북미 고객사 물량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예상대비 양호한 이익을 달성했다. DX 부문의 영업이익이 우려대비 양호했는데, 메모리를 필두로 한 원가 부담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고, 플래그십 출시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26년 2분기에도 견조한 가격 흐름 지속

26년 2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DRAM 가격은 38%, NAND 가격은 50% 상승으로 가정한다. 빅테크를 필두로 한 서버 고객사는 물론 모바일 고객사 역시 가격 상승을 감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바일 고객사들은 원가 상승 구간을 점유율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관철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AI 시스템에 탑재되는 각종 CPU, DPU, LPX 등에 LPDDR이 탑재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장기 공급 계약의 형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상단이 막힌 구조보다는 일정 부분 가격 범위가 열릴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업사이드 여력 역시 상존한다. 상반기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하반기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이 역시 고객사들의 물량 확보 의지가 강하다면, 언제든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26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격 가정이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26년 매출액은 668조원, 영업이익은 355조원으로 상향한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100%, 711%에 달한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 임박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한다.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55% 상향 조정했지만, 최근 낮아진 메모리 업체들의 멀티플을 적용하면 목표주가는 유지된다. 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90조원 육박, 3분기부터는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분기 100조원의 영업이익 전망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메모리의 실적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이 기다리고 있고, 풍부한 FCF를 기반으로 강력한 주주환원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적 상향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메모리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및 최선호주 추천을 유지한다.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CJ프레시웨이 (051500)

1Q26 Pre: 온라인 채널 확대 위한 마케팅비 지출

BUY (유지)

목표주가(12M)	48,000원
현재주가(4.07)	26,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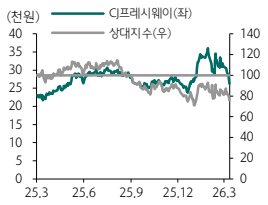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36.73
52주 최고/최저(원)	36,050/21,700
시가총액(십억원)	311.6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1,871.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8.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
외국인지분율(%)	15.56
주요주주 지분율(%)	
CJ 외 6 인	47.90
EFG PRIVATE BANK SA	10.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812.2	4,107.0
영업이익(십억원)	115.3	127.4
순이익(십억원)	69.2	78.3
EPS(원)	5,584	6,411
BPS(원)	42,527	50,00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24.8	3,481.1	3,755.5	4,018.4
영업이익	94.0	101.7	111.1	127.3
세전이익	41.8	61.2	83.1	102.8
순이익	25.9	50.1	63.3	75.9
EPS	2,184	4,221	5,333	6,391
증감율	(52.41)	93.27	26.34	19.84
PER	7.99	6.34	5.23	4.37
PBR	0.50	0.70	0.65	0.57
EV/EBITDA	3.14	3.45	3.05	2.43
ROE	7.36	11.51	13.08	13.86
BPS	34,990	38,342	43,175	49,065
DPS	450	500	500	5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6 Pre: 시장 기대 소폭 하회 예상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8,437억원(YoY 5.6%), 108억원(YoY 1.4%)으로 추정한다. 손익은 온라인 채널 확장 관련 마케팅비 지출 기인해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① 급식 부문 매출액(급식 식자재 제외)은 YoY 8.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런치 플레이션 기인한 견조한 식수가 이어지는 한편, 인천공항 케이터링 수주도 탑라인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② 식자재 부문 매출액(급식 식자재 포함)은 YoY 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 경로는 키즈 및 실버 채널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식 경로는 온라인 채널 매출이 전년수준으로 회복하면서 YoY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③ 온라인 채널 매출은 300억원으로 추정한다. 채널 다양화 전략을 도입하면서 1H25 분기 300억원 내외→ 2H25 200억원 내외로 단기 부침이 있었다. 1Q26는 QoQ, YoY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 매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이 불가피하게 투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견조한 매출 및 이익 성장 전망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3조 7,555억원(YoY 7.9%), 1,111억원(YoY 9.2%)으로 추정한다. 식자재 부문은 온라인 채널 강화에 따라 하반기 갈수록 매출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온라인 채널 매출이 QoQ, YoY 성장세로 돌아선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온라인 구매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통합 배송 서비스를 통한 공급자 바인딩 효과로 단기 가파른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급식 부문은 인천 공항 케이터링 수주 확대에 따른 탑라인 및 영업마진 개선이 예상된다. 키즈/실버 채널에서의 입지 강화도 긍정적이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5배에 불과하다. 과거 대비 안정적인 이익 체력 및 중장기 온라인 채널 매출 확대가 기업 가치에 반영될 시점으로 판단한다.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Company Memo

LG에너지솔루션 (373220)

EV 부진 지속

BUY (유지)

목표주가(12M)	518,000원
현재주가(4.07)	40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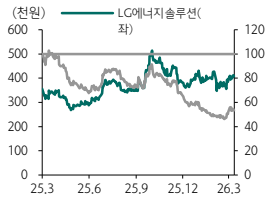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94.78
52주 최고/최저(원)	514,000/268,000
시가총액(십억원)	95,589.0
시가총액비중(%)	2.11
발행주식수(천주)	234,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14.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4.4
외국인지분율(%)	5.07
주요주주 지분율(%)	
LG화학	79.38
국민연금공단	6.1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7,178.3
영업이익(십억원)		1,267.4
순이익(십억원)		546.7
EPS(원)		630
BPS(원)		88,45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3,745.5	25,619.6	23,671.8	27,023.8
영업이익	2,163.2	575.4	1,346.1	1,681.2
세전이익	2,043.5	348.9	412.6	947.1
순이익	1,237.2	(1,018.7)	(798.2)	(194.4)
EPS	5,287	(4,354)	(3,411)	(831)
증감율	59.97	적전	적지	적지
PER	80.86	(79.93)	(108.03)	(496.39)
PBR	4.95	3.86	4.33	4.89
EV/EBITDA	29.17	48.47	29.39	20.54
ROE	6.36	(4.93)	(3.89)	(0.98)
BPS	86,328	90,240	85,125	84,295
DPS	0	0	0	0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1Q26 Review : 적자 지속

1Q26 잠정 실적은 매출 6.6조원(YoY -3%, QoQ +1%), 영업손실 2,078억원(YoY 적자전환, QoQ 적자지속)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1,398억원)를 하회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분기 대비 -1.2%p 하락했다. 하나증권 영업이익 추정치(-1,888억원)보다 약 2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됐는데, ESS AMPC 발생금액이 예상보다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ESS 출하량은 단기 수요 변동폭이 크지 않고 예정돼있던 물량이 다음 분기로 이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그러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미국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금액은 1,89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 감소했다(AMPC 포함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3Q25: 10.5%, 4Q25 -2.0%, 1Q26 -3.2%). AMPC 발생 금액을 배터리 용량으로 환산 시 약 2.9GWh 규모다. 잠정 실적이므로 EV/ESS 구분이 어려우나, 시장 규모 및 CAPA 감안 시 EV/ESS 각각 약 0.0GWh/2.9GWh의 배터리가 출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EV 배터리 출하량은 현재 GM 전기차 배터리 재고 감안할 때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MPC 제외한 영업손실은 3,975억원(OPM: -6.2%)으로 2개 분기 연속 적자 기록했다(AMPC 제외 시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3Q25 4.1%, 4Q25 -7.4%, 1Q26 -6.2%).

얼티엄셀즈 가동 중단 여파로 EV 부진

EV 배터리 AMPC 발생 금액에 근거했을 때, 2025년 한 해 동안 EV 배터리 셀 생산은 전기차 약 30만대 분량이 출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GM 전기차 판매는 약 20만대 수준에 그치며, 고객사 내 배터리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GM은 올해 1월부터 얼티엄셀즈 1, 2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번 잠정실적에서도 그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ESS 배터리는 북미 단독 공장 가동률 상승하며 1Q26 출하량은 QoQ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견조한 ESS 성장 고려할 때 매수 가능 가격대

영업적자 지속됐으나, EV 부진 불구하고 QoQ 매출 감소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분기부터는 ESS 성장 본격화되며 매출 및 이익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목표 시총 121조원(2028년 예상 지배주주순익 3.1조원 및 상장 이후 평균 24M Fwd P/E 39배 적용) 감안하면, 현 가격에서는 매수로 접근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재생에너지+ESS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목표주가 518,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DL이앤씨 (375500)

무난한 1분기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0,000원(상향)
현재주가(4.07)	75,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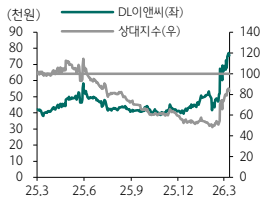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94.78
52주 최고/최저(원)	77,200/38,000
시가총액(십억원)	2,925.2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38,693.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24.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9.7
외국인지분율(%)	20.52
주요주주 지분율(%)	
DL 외 7 인	24.82
국민연금공단	8.0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925.3	7,187.0
영업이익(십억원)	450.0	512.8
순이익(십억원)	339.5	387.6
EPS(원)	7,884	8,994
BPS(원)	132,672	140,17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318.4	7,402.4	6,526.3	6,735.8
영업이익	270.9	387.0	454.0	455.5
세전이익	353.9	117.2	494.0	495.6
순이익	229.2	370.2	355.6	356.8
EPS	5,348	8,625	8,286	8,313
증감율	22.18	61.28	(3.93)	0.33
PER	6.01	4.77	9.32	9.29
PBR	0.28	0.33	0.59	0.56
EV/EBITDA	0.96	1.50	3.65	3.34
ROE	4.77	7.34	6.58	6.23
BPS	113,286	123,370	130,791	138,237
DPS	540	890	890	89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1Q26 추정: 매출액 1.6조원, 영업이익 1,044억원(OPM 6.4%)

1Q26 매출액 1.6조원(-9.3%yoy), 영업이익 1,044억원(+28.9%yoy)으로 추정한다. GPM을 주택 17.0%, 토목 10.0%, 플랜트 10.0%, DL건설 14.8%로 추정했다. 주택은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원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봤으며, 플랜트도 작년 4분기에 조정된 원가율 수준인 90%로 추정했다. 1분기 수주는 2.2조원(주택 1.5조원, 토목 0.3조원, DL건설 0.4조원)으로 추정했으며, 플랜트 수주는 미미하다. 1분기 착공세대수는 DL이앤씨 1,943세대, DL건설 0세대다.

X-Energy와의 SMR 업데이트

엑스에너지와의 표준화모듈 설계(0.1억달러)가 뉴스 보도됐다. 이번 표준화모듈 설계는 뉴스케일과 같이 표준설계인가(SDA)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패키지 설계 용역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엑스에너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건(Dow Seadrift, Northwest/Amazon Cascade)이다. 초도호기인 Seadrift 프로젝트(320MW)는 미국 자크리(Zachry) 컨소시엄이 EPC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3월에 건설허가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마존이 투자하는 Cascade(320MW→최대 960MW)는 미국 컨소시엄(Kiewit, Aecon 등)이 EPC를 담당하며, 인허가 준비 단계다. 여기에 영국 Hartlepool(960MW), 미국 Talen Energy(960MW 이상) 등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DL이앤씨는 Cascade 2단계(640MW~960MW로의 확장) 때 입찰 참여가 가능해 보인다. 엑스에너지가 올해 상장을 위해 등록한 SEC S-1서류에 DL이앤씨를 파트너사로 언급한 것을 보면, 추후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00,000원으로 상향

DL이앤씨 투자의견 Buy를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5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81.8%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12.0배를 적용했다. 1분기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영향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다. 다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자재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전반적인 마진 추정치 하향은 나타날 수 있다.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GS건설 (006360)

상반기 1만세대 분양 페이스

BUY (유지)

목표주가(12M)	39,000원(상향)
현재주가(4.07)	28,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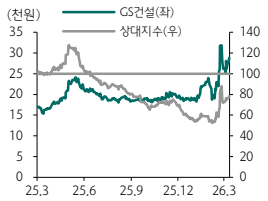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94.78
52주 최고/최저(원)	31,850/15,340
시가총액(십억원)	2,464.7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85,581.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13.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9.8
외국인지분율(%)	20.20
주요주주 지분율(%)	
허창수 외 16 인	23.22
국민연금공단	6.9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1,600.7	12,089.9
영업이익(십억원)	510.6	600.1
순이익(십억원)	299.4	403.9
EPS(원)	3,162	4,297
BPS(원)	57,015	60,85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2,863.8	12,450.3	11,543.9	11,858.4
영업이익	286.0	437.8	467.9	581.6
세전이익	441.5	147.3	461.8	552.8
순이익	245.6	93.5	299.7	366.1
EPS	2,869	1,093	3,502	4,278
증감율	흑전	(61.90)	220.40	22.16
PER	6.05	18.02	8.00	6.55
PBR	0.33	0.35	0.47	0.44
EV/EBITDA	11.23	8.00	7.93	6.67
ROE	5.63	2.03	6.09	7.02
BPS	52,003	56,430	59,436	63,219
DPS	300	500	500	5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1Q26 추정: 매출액 2.7조원, 영업이익 995억원(OPM 3.6%)

1Q26 매출액 2.7조원(-9.7%yoy), 영업이익 995억원(+41.3%yoy)으로 추정한다. GPM을 인프라 7.0%, 건축주택 11.5%, 플랜트 8.0%, 신사업 15.0%로 추정했다. 작년 4분기 실적발표 때 회사가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원가율 80% 후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1분기 분양은 약 4,400세대이며, 2분기에는 6,400세대 예정이다(연간 가이던스 14,300세대). 상반기 달성률이 높은 이유는 작년 현장들이 2026년 분양으로 밀린 결과다. 1분기 수주는 3.5조원(건축주택 3.0조원)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영향과 원전, 데이터센터, 재건이력 업데이트

해협 폐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원가율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혼화제 등 수급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사우디 파딜리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 중이며, 아직 자재 우회 방안 등을 고려할 수준은 아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i-SMR 초도호기 설계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대형원전은 베트남 팀코리아 입찰을 2분기 중에 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GS건설은 과거 신월성 1~2호기(지분 13.5%, 15년 완공), 신한울 1~2호기(지분 25%, 24년 완공)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3개 진행할 예정(부산, 일산, 가산, 총 130MW)이며, 이를 통해 약 0.8~1조원의 매출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재건 관련해서 GS건설은 과거 UAE 루와이스 화재 복구 공사(RRW)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2Q17에 수주(1.4조원)하여 1Q19에 완공하는 프로젝트였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39,000원으로 상향

GS건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24,000원에서 39,000원으로 62.5%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11.0배를 적용했다. 향후 추정치는 해협 폐쇄 장기화 여부에 달려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축자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유가로 유지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 원가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마진 추정치가 하향될 수 있으며, 공사비 상승에 따라 주택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 또한 미뤄질 수 있다.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시프트업 (462870)

신작 공개까지 대기

BUY (유지)

목표주가(12M)	45,000원(하향)
현재주가(4.07)	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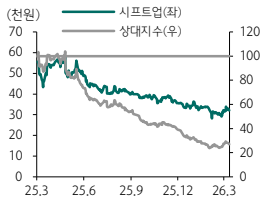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94.78
52주 최고/최저(원)	58,500/28,200
시가총액(십억원)	1,887.5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58,654.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7.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
외국인지분율(%)	36.98
주요주주 지분율(%)	
김형태 외 8 인	42.22
ACEVILLE PTE. LTD.	34.4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24.1	294.5	195.2	238.1
영업이익	152.7	181.4	103.9	135.3
세전이익	178.8	233.0	127.1	161.1
순이익	148.0	191.4	104.4	132.3
EPS	2,717	3,261	1,777	2,256
증감률	N/A	20.02	(45.51)	26.96
PER	23.33	10.89	18.01	14.18
PBR	4.84	2.16	1.75	1.55
EV/EBITDA	19.48	8.33	11.66	8.32
ROE	19.36	22.71	10.72	12.12
BPS	13,104	16,471	18,337	20,593
DPS	0	0	0	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1Q26 Pre: 컨센서스 하회 전망

시프트업은 1분기 영업수익 438억원(+3.6%YoY, -31.7%QoQ), 영업이익 236억원(-10.3%YoY, -36.4%QoQ, OPM 53.8%)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1분기 [승리의 여신: 니케] 매출은 338억원(+4.6%YoY, -24.8%QoQ)으로 추정한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1월 신년 이벤트, 2월 리코리스 리코일 콜라보를 진행했으며 트래픽은 견조하나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 유지 중이다. 1분기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은 65억원(-7.5%YoY, -57.9%QoQ)로 추정한다. 할인을 통해 10만장 이상 판매한 것으로 예상한다. 지속적인 판매는 곧 차기작에 대한 소구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은 예정된 감익 구간. 신작 정보가 필요

2026년 영업수익 1,952억원(-33.6%YoY), 영업이익 1,039억원(-42.6%YoY, OPM 53.2%)를 기록할 전망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1,570억원(-5.9%YoY), [스텔라블레이드]는 245억원(-78.8%YoY)으로 추정한다. [스텔라블레이드]가 2024년 콘솔, 2025년 PC 출시되어 높은 성과를 거뒀으나 2026년은 신작이 부재하여 전년 대비 감익이 불가피하다. 이는 2024년 상장 당시부터 예고되었던 공백기다. 하반기 신작 [프로젝트 스피릿], [스텔라블레이드2]의 정보와 출시 타임라인이 공개되어야 시장의 기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프트업은 4월 1일 미카미 신지 디렉터가 이끄는 언바운드를 인수했다. 현재 개발 인원은 60여명이며 AAA급 타이틀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시프트업은 언바운드와 협력하고 향후 신작의 퍼블리싱을 전담할 예정이다. 신작 출시 전까지 인건비 부담이 있겠으나 시프트업 자체 라인업 2종 이후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026년 재무적인 고비를 넘긴다면 2027년부터 2029년 매년 1종 이상의 글로벌 대형 신작을 출시하여 성과로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45,000원으로 하향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45,0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2027년 예상 EPS에 Target Multiple 20배를 적용했다. 텐센트와 공동 개발 중인 [프로젝트 스피릿]의 출시 시점을 2027년 4분기, [스텔라블레이드2]는 2028년으로 추정했다. 추후 정보 공개에 따라 변동할 예정이다. 시프트업의 개발력과 PLC 관리 능력에는 의심이 없으나 2026년 영업이익의 공백, 국내 게임 섹터 전반의 소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내 신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4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LG전자 (066570)

본업의 정상화에 로봇 모멘텀 추가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0원(상향)
현재주가(4.07)	107,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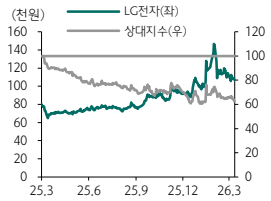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94.78
52주 최고/최저(원)	146,700/64,700
시가총액(십억원)	17,445.1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162,884.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10.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6.5
외국인지분율(%)	33.41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2,223.9	95,929.2
영업이익(십억원)	3,463.1	3,912.6
순이익(십억원)	2,218.7	2,552.6
EPS(원)	9,834	11,237
BPS(원)	132,788	142,11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728.2	89,200.9	91,822.0	95,515.0
영업이익	3,419.7	2,478.4	3,441.1	4,192.9
세전이익	1,335.8	1,836.4	2,611.8	3,007.9
순이익	367.5	960.6	2,284.2	2,561.0
EPS	2,032	5,321	12,685	14,223
증감율	(48.45)	161.86	138.40	12.12
PER	41.09	17.27	8.44	7.53
PBR	0.72	0.69	0.74	0.68
EV/EBITDA	3.66	4.22	3.57	2.86
ROE	1.81	4.28	9.17	9.46
BPS	116,348	132,656	143,993	156,764
DPS	1,000	1,350	1,450	1,45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1Q26 잠정실적 Review: 반가운 MS 턴어라운드!

연결기준 26년 1분기 매출 23조 7,330억원(YoY +4.4%, QoQ -0.5%), 영업이익 1조 6,736억원(YoY +34.8%, QoQ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18조 3,162억원(YoY +2.4%, QoQ +11.9%), 영업이익 1조 4,652억원(YoY +31.2%, QoQ 흑자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21% 상회했는데 MS 및 VS 부문과 연결자회사 LG이노텍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HS 부문은 관세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전년동기대비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졌으나 온라인 판매 강화, 가전 구독 매출 확대 및 비용 절감 등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했다. MS 부문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며 프리미엄 TV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및 인력 조정에 따른 고정비 축소 효과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했다. VS부문은 IM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ES 부문은 가이던스 대비 부진했는데 타 사업부 대비 높은 중동 매출 비중으로 인해 수요측면에서 영향이 있었으며 데이터센터향 칠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채용 등으로 고정비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MS 부문이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구조적 수익성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2026 Preview: 연내 로봇 액츄에이터 양산 체제 구축

연결기준 26년 매출 91조 8,220억원(YoY +3%), 영업이익 3조 4,411억원(YoY +40%, OPM 3.7%),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69조 5,388억원(YoY +2.7%), 영업이익 2조 5,023억원(YoY +40%, OPM 3.6%)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사 차원의 비용 절감 활동으로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로봇향 신사업 본격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연내 액츄에이터 AXIUM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홈로봇 클로이드의 현장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운 업황 속 견조한 실적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로봇 사업의 본격화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목표주가 16만원으로 상향

LG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예상 BPS 143,993원에 지난 5년간 PBR 밴드 평균 1.1배를 적용했다. 불안정한 대외환경에서도 비용 절감 활동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향 HVAC,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신사업 성과의 가시화는 주가 리레이팅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026년 2월 11일 | 기업분석

롯데렌탈 (089860)

재평가의 계기

BUY (유지)

목표주가(12M)	38,000원(상향)
현재주가(2.10)	33,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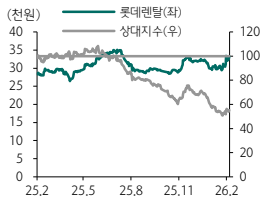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301.69
52주 최고/최저(원)	35,050/26,400
시가총액(십억원)	1,205.5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36,309.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5.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
외국인지분율(%)	7.41
주요주주 지분율(%)	
호텔롯데 외 9 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6.2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970.3	3,197.1
영업이익(십억원)	313.8	358.6
순이익(십억원)	132.2	166.9
EPS(원)	3,643	4,404
BPS(원)	43,129	46,29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752.3	2,792.4	2,918.8	3,073.2
영업이익	305.2	284.8	312.5	333.2
세전이익	161.4	133.4	163.2	170.4
순이익	120.0	106.8	123.8	127.8
EPS	3,275	2,917	3,411	3,520
증감율	27.09	(10.93)	16.94	3.20
PER	8.47	10.27	9.23	9.43
PBR	0.74	0.74	0.73	0.73
EV/EBITDA	3.78	3.85	4.32	5.07
ROE	9.01	7.50	8.16	7.99
BPS	37,351	40,683	42,894	45,213
DPS	1,200	1,200	1,200	1,3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5년 연간 영업이익 10% 증가 가이던스 달성

4분기 롯데렌탈 매출액은 1% (YoY) 증가한 7,264억원,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793억원 (영업이익률 10.9%)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본업인 렌터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6% (YoY) 증가하며 양호했으나, 중고차 렌터카 매각 대수 감소로 중고차 매각이익이 감소했던 영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10% (YoY) 증가하며 가이던스를 달성했다. 2026년은 본업의 양호한 흐름에 더불어 중고차 렌터카의 매각 시점이 도래하면서 최고 실적을 갱신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SK렌터카와의 기업결합 불허에도 기업 가치는 변함 없음, 주주환원은 지켜볼 것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가 공정위의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롯데렌탈의 매각과 SK렌터카와의 기업결합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는 별개로 롯데렌탈의 신용등급과 자금 조달은 동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변함없다. 롯데렌탈은 2025년 결산배당으로 1,200원을 책정했는데,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따른 회사채 조기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배당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목표주가 3.8만원으로 상향

당분간 롯데렌탈의 주가는 신규 매각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며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펀더멘탈이 견고한 이상 매각 이슈는 재평가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어피니티가 인수를 추진할 때 롯데렌탈에 대해 기업가치를 2조원 이상으로 책정한 바 있다. 현재 시가총액은 1.2조원에 불과하다. 어피니티 인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을 반영했던 EPS를 조정하고(12MF EPS 37,567원), 기존 목표 P/E 10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38,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2026년 04월 0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Earnigs Preview)

미래에셋증권 (006800)

1Q26 Pre – SpaceX 가 끝이 아님

BUY

목표주가(12M) 81,000원(상향)
현재주가(04월07일) 6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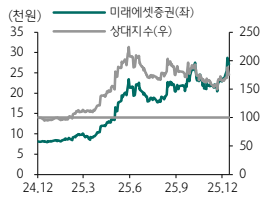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pt)	
52주최고/최저(원)	5,494.78
시가총액(십억원)	73,282/8,463
시가총액비중(%)	34,152.0
발행주식수(천주)	0.75
60일 평균거래량(천주)	559,566.9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6,324.4
외국인 지분율(%)	331
주요주주 지분율(%)	
미래에셋캐피탈 외 17 인	33.98
네이버	8.5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4,048	35,674
영업이익(십억원)	2,939	2,351
순이익(십억원)	2,273	1,807
EPS(원)	3,216	2,519
BPS(원)	26,242	28,60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순영업수익	2,834.4	3,910.2	5,404.0	4,374.0
영업이익	1,188.1	1,915.0	3,364.4	2,332.2
세전이익	1,224.5	2,080.0	3,396.6	2,360.0
지배순이익	921.6	1,579.8	2,494.2	1,733.1
PER	5.1	8.6	14.3	20.5
PBR	0.4	1.0	2.3	2.1
ROA	0.7	1.1	1.6	1.1
ROE	7.6	11.9	16.0	10.1
DPS	250	300	650	650
배당성향	15.9	26.3	15.2	21.7
배당수익률	3.1	1.3	1.1	1.1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2026년 1분기 컨센서스 32% 상회 예상

2026년 1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은 1.2조원(YoY +348.9%, QoQ +101.2%)으로 컨센서스(8,790억원)를 약 32.1%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1분기 연환산 연결 ROE는 32.6%(YoY +24.1%p, QoQ +15.2%p)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하 별도 기준)

[브로커리지] 1분기 위탁매매 수수료손익은 4,125억원(YoY +128.2%, QoQ +37.9%)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전분기대비 19% 감소했으나, 국내증시 거래대금이 전분기대비 81%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른 국내/해외 비중은 각각 76%, 24% 수준으로 추산된다. WM 수수료수익은 915억원(YoY +24.7%, QoQ +2.7%)으로 추정한다.

[이자] 이자손익은 1,269억원(YoY +80.9%, QoQ +19.5%)으로 신용공여이자수익 중심으로 이자수익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레이딩]** 운용 및 기타손익은 채권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채권평가손실폭 축소와 ETF LP 운용수익 기여도 확대되며 2,208억원(YoY +2.1%, QoQ +90.6%) 기록할 전망이다. **연결 기준**으로는 SpaceX 평가이익이 반영되며 1.4조원(YoY +188.6%, QoQ +87.3%)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성과급이 반영되며 판관비는 3,833억원(YoY +23.1%, QoQ +13.7%)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81,000원으로 25% 상향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81,000원으로 25% 상향한다. 2026년 예상 BPS 26,802원에 목표 P/B 3.0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시장에서는 SpaceX 상장 이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SpaceX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연결기준 종속회사로 인식되는 주요 투자조합을 살펴보면, SpaceX와 xAI 관련 투자는 **미래에셋AI투자조합1호, Gaia Fund I, Gaia Fund II, Mars Fund I, Mars Fund III, 글로벌섹터리더투자조합1호, 스페이스투자조합1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해당 투자조합들의 2025년 자산총계는 2024년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SpaceX 관련 투자 외에도, 글로벌혁신성장투자조합1호, 데모테크프론티어투자조합, 글로벌딥테크투자조합1호, AI프론티어투자조합** 등 AI 및 혁신기업 관련 투자분에 대한 평가이익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약 2,4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도표3 참고).

동사는 SpaceX를 포함한 혁신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매크로 환경에 따라 평가이익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투자자산이 트레이딩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미래에셋그룹 차원의 코빗 인수, 미국 디지털은행 에레보르 투자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해 나가는 점도 긍정적이다.

2026년 04월 08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슈프리마 (236200)

AI 보안 플랫폼으로의 도약, 성장은 이제부터

Not Rated

현재주가(4.7) **43,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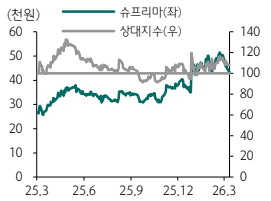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36.73
52주 최고/최저(원)	51,500/25,700
시가총액(십억원)	302.7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6,974.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4.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8
외국인지분율(%)	24.62
주요주주 지분율(%)	
이재원 외 5 인	31.40
국민연금공단	5.2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2	199
영업이익(십억원)	42	49
순이익(십억원)	42	50
EPS(원)	5,984	7,097
BPS(원)	45,015	52,12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9	95	108	137
영업이익	18	17	23	33
세전이익	19	25	38	37
순이익	18	23	32	32
EPS	2,484	3,191	4,516	4,474
증감율	(21.1)	28.5	41.5	(0.9)
PER	8.7	6.5	5.4	8.7
PBR	0.8	0.7	0.7	1.0
EV/EBITDA	3.7	3.2	4.0	4.3
ROE	9.8	11.2	13.7	11.9
BPS	26,086	29,329	33,854	38,295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바이오인식 기술 기반의 글로벌 통합보안 솔루션 기업

슈프리마의 주력 사업은 출입통제 관련 단말기·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통합보안시스템(매출 비중 78%)과 지문인식 알고리즘·모듈을 제공하는 바이오인식솔루션(12%)으로 구분된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1,373억원(+26.9% YoY), 영업이익 327억원(+40.6% YoY, OPM 23.8%)을 달성하였다. 전체 매출의 해외 비중은 약 80%이다(글로벌 217개 파트너사/7개 해외지사: 아메리카(24.3%)·유럽(20.4%)·아시아(18.5%)·중동/아프리카(17.5%)).

글로벌 물리보안·AI 보안 시장의 구조적 성장 수혜

글로벌 물리보안 시장은 2025년 약 1,208억달러에서 2034년 2,223억달러까지 연평균 7% 대 성장이 전망된다(Fortune Business). 국내 출입통제·생체인식 분야 역시 2026년 1.57조(+15.6% YoY)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보안뉴스), AI 비접촉 인증 확산과 스마트시티 수요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슈프리마는 글로벌 출입보안 리더 시장 3위(점유율 4.2%), 바이오메트릭 리더 2위(12.7%)로 EMEA 지역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Omdia, 2021).

현대차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및 AI 카메라 신사업

동사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대건설과 로봇 친화형 빌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AI 바이오인식 기술을 로봇 인프라에 연동하여 배송·방문객 인증 등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현대건설 전체 프로젝트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전사 실적 내 현대차그룹향 매출 비중은 3% 수준으로 추정되며, 계열사 전반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3분기 자체 개발 AI 카메라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VMS·출입통제를 결합한 번들 판매를 통해 통합보안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센터·인도 등 고성장 버티컬 매출 확대

AI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확장에 따라 물리보안 수요가 실적에 기여하는 흐름이다. 에퀴닉스 등 대형 사업자향 매출은 2025년 40억원에서 2026년 7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장비 교체주기(약 7년) 도래와 신규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인도 시장은 2023년 3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항만·인프라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AI 얼굴인식 알고리즘과 퓨전 매칭 기술을 기반으로 히잡 착용 상태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확보한 점은 중동·인도 등 신흥 시장 공략의 핵심 경쟁력이다.

견조한 실적과 국내외 자본시장의 재평가 기대

2026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684억원(+22.7% YoY), 영업이익 416억원(+27.1% YoY)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통합보안시스템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바이오인식솔루션 부문에서는 퀄컴과의 재계약이 완료되며 갤럭시 시리즈 판매량과 연동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며, 국내 기관의 5% 이상 보유 공시와 외국인 지분율 24% 도달 등 자본시장 내 재평가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4월 8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 장비

스페이스X가 통신산업에 진출한다면?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4월 07일

쏠리드(050890)
BUY | TP 20,000원 | CP 14,42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82,800원

이노와이어리스(073490)
BUY | TP 60,000원 | CP 40,30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50,000원 | CP 26,35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28,000원 | CP 13,470원

우리넷(115440)
BUY | TP 15,000원 | CP 10,64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120,000원 | CP 73,8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39,35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4,45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미국 스페이스X 추가 주파수 취득 예고, 지상망 투자 본격화 예상

스페이스X가 2026년 6월로 예정된 AWS 3 밴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미 총 23조원을 들여 45MHz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입찰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을 위주로 통신서비스를 주도할 생각이라면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용 주파수를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버라이즌/AT&T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에 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제 스페이스 X의 신규 주파수 낙찰 이후 기지국/인빌딩/스몰셀 등 지상망 투자 가능성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산업 붙여서 피지컬 AI 완성할 듯, 통신사 M&A 가능성도 존재

최근 파격적인 스페이스X의 행보엔 근원적으로 피지컬 AI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AI-통신-로봇의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위성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통신사와 협업 관계만으로는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광-위성간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광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선 여전히 지상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피지컬 AI 산업에서 중요시되는 초저지연, 저전력 기술 시현을 위해서는 5G/6G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결국 지상망을 확보하지 않고선 피지컬 AI 구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언론에선 향후 미국에서 스페이스X 주도의 통신사 M&A가 전개될 수 있다는 구상이 언급되기도 했다. 에코스타 또는 T-Mobile을 두고 한 말이다. 물론 미국 정부/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상용 주파수를 취득한 상태라는 점과 공화당 정권임을 감안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디시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른 공룡, 국내 통신장비 업체엔 기회 될 전망

스페이스X가 신규 주파수 취득 이후 통신장비 구축에 나선다면 국내 통신장비업종의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디시네트워크와는 체급이 다른 글로벌 공룡이 통신시장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3천조원이며 펀딩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막대한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다. 물론 스페이스 X가 지상망 투자에 나선다고 해도 국내 통신장비 업체가 수혜가 받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전파 인증 작업이 부품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중국 부품 제외 시 글로벌 SI들이 마땅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아웃소싱 통신장비 업체들의 삼성전자/에릭슨을 통한 스페이스X 진입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유선과 달리 국내 무선 통신장비업체들의 경우 중국장비업체 대비 M/S도 높고 기술력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무선 통신장비 수요 및 공급 상황이 2019년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선통신장비주 위주로 비중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KMW/RFHIC/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오이솔루션이 대표적이다.

2026년 04월 08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자동차

완성차 1분기 프리뷰: 로봇 및 자율주행 모멘텀이 중요

Overweight

Top Picks

*CP 2026년 04월 07일

현대차(005380)
BUY I TP 660,000원 I CP 473,000원

기아(000270)
BUY I TP 210,000원 I CP 150,8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1분기 실적은 하회할 전망. 전쟁이 길어지면 부담. 주가 동력은 로봇과 자율주행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6만원/21만원을 유지한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5조원, 기아는 2.20조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 정세의 악화로 시장수요가 부진(특히, 아중동)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도매판매 물량이 각각 -2%/+0% (YoY) 변동했고, 지역 믹스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제품 믹스와 평균 환율의 상승으로 매출액은 만회했지만, 비용 측면에서 관세 비용 및 기말환율 상승에 따른 판매보증비용의 증가, 그리고 물류비 등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단기 수요 감소와 물류비 증가가 반영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원재료 재고(통상 2개월) 및 원재료-부품-완성차간 시차(제품별로 3~9개월)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 부정적일 수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분기에는 판매보증비용의 증가로 단기 수익성에는 부정적이었지만, 2분기 이후에는 평균환율의 상승 효과가 훨씬 크게 반영되면서 수익성 방어에 기여할 것이다.

완성차 주가는 현재 P/E 9배의 Valuation으로 자동차 제조 사업으로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주가는 EPS 증가가 부재한 바, Valuation Multiple을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하다. 4Q25~1Q26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었고, 2분기 이후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 공개 및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상장 등이 로봇 모멘텀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 주간사 선정 기대감이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하반기 출시될 SDV Pace Car 및 L2+ G90의 기술 경쟁력 확인이 Valuation 프리미엄을 결정할 중요 이벤트이다. 단기적으로 4월 9일 예정된 기아 CEO Investor Day에서 관련 내용들이 공유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완성차 1Q26 Preview: 전쟁으로 인한 단기 수요감소와 판매보증비용의 증가

현대차의 1분기 도매판매는 3% (YoY) 감소한 97.5만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도매판매는 2% (YoY) 감소한 94.8만대였다. 지역 믹스와 인센티브는 부정적이었지만, HEV 비중 상승(+4.3%p (YoY))에 따른 제품 믹스와 원/달러 평균환율의 상승(+1% (YoY))으로 ASP는 4% (YoY)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관세(1.0조원)과 판매보증비용(+0.4조원)이 비용으로 반영된 것으로 계산한다. 결과로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2%/-30% (YoY) 변동한 45.5조원/2.55조원(영업이익률 5.6%, -2.6%p (YoY))으로 예상한다.

기아의 1분기 도매판매는 0% (YoY) 증가한 77.6만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도매판매는 0% (YoY) 증가한 75.7만대였다. 지역 믹스와 인센티브 증가는 부정적이었지만, HEV/EV 비중 상승(+6.4%p (YoY))에 따른 제품 믹스의 향상과 평균환율의 상승으로 만회하면서 ASP는 4% (YoY)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용에서는 미국 관세가 약 0.7조원 반영되고, 기말환율 상승으로 판매보증비용이 증가(+0.25조원)할 것으로 추정한다. 결과로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4%/-27% (YoY) 변동한 29.2조원/2.20조원(영업이익률 7.5%, -3.2%p (YoY))으로 예상한다.

미디어

15개 분기 연속 하락세인 TV광고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J ENM(035760)
BUY | TP 77,000원(하향) | CP 52,000원

스튜디오드래곤(253450)
BUY | TP 50,000원(하향) | CP 33,400원

SBS(034120)
BUY | TP 20,000원(하향) | CP 14,770원

*CP 2026년 4월 7일

최소 2분기까지는 이어질 업황의 불확실성

TV광고 업황은 높은 기저효과에 더해 드라마 편성 확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1분기도 부진하지만 2분기도 불확실하다. TV광고만 회복한다면 CJ ENM은 티빙-웨이브 합병 모멘텀 및 스튜디오드래곤의 편성 확대, SBS는 넷플릭스향 판매에 대한 레버리지가 확인되겠지만,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 현재 TV광고 업황은 15개 분기 연속 하락세이며 최소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J ENM: 1Q 예상 OP 143억원(+1,928%)

CJ ENM의 1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2조원(+2% YoY)/143억원(+1,928%)으로 컨센서스(308억원)를 하회할 것이다. 부문별 예상 영업이익은 미디어플랫폼이 -75억원(적지)으로 TV광고가 -12% 수준으로 예상된다. 티빙이 고성장 하며 예전 피크 수준의 가입자까지 회복하고 있으나 WBC 중계 및 일부 드라마 관련 상각비가 반영된다. 영화/드라마는 피프스시즌은 3개의 드라마 타이틀이 반영되지만 유통 매출 부재로 -151억원(적지), 음악은 ALD1의 성공적인 데뷔(초동 143만장)로 112억원(+321%)이 예상된다.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겠지만, 넷마블과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SOTP 기준 목표주가를 77,000원(-10%)으로 하향한다.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이 넷마블 지분 가치다.

스튜디오드래곤: 1Q 예상 OP 85억원(+99%)

스튜디오드래곤의 1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406억원(+5% YoY)/85억원(+99%)으로 컨센서스(100억원)를 하회할 것이다. 방영 회차는 82회(TV 64회, OTT 18회)로 전년 동기(59회) 대비 증가했고, <언더커버 미쓰홍>, <세이렌> 등이 선 판매 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작품들의 상각비 부담으로 상쇄된다. 2분기는 티빙향 <유미의 세포들3>과 <취사병 전설이 되다>, 넷플릭스향 <참교육>, <맨 끝줄 소년> 등이 반영되며 예상 영업이익은 140억원(흑전)으로 개선될 것이다. EPS를 소폭 하향해 목표주가를 50,000원(-7%)으로 하향한다.

SBS: 1Q 예상 OP 36억원(흑전)

SBS의 1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213억원(+7% YoY)/36억원(흑전)으로 컨센서스(18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2022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TV광고 업황은 1분기에도 재차 -7%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인데, 이란 전쟁 이슈가 지속되면서 당장 2분기의 업황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넷플릭스 등을 포함한 사업 수익이 과거 대비 분기 100억원 이상 상승하면서 하락 폭을 상쇄하지만 연간 광고 업황 하향에 따른 EPS 하향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20,000원(-17%)으로 하향한다. 현 주가는 2026년 예상 P/E 기준 약 7배 수준이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6	186,200	196,500	5.5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4/6	145,500	146,700	0.82%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6	93,400	95,200	1.93%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한미약품 (128940.KS)	4/6	507,000	507,000	0.00%	• 2026년 상반기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유효 • 하반기 국산 비만치료제 출시와 연간 1건 이상의 기술이전 가이던스를 제시
엔씨소프트 (036570.KS)	4/6	211,500	210,000	-0.71%	• JustPlay 인수로 글로벌 캐주얼 게임 라인업과 AdTech 역량을 내재화 • 하반기 캐주얼 장르 스튜디오에 대한 추가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
CJ제일제당 (097950.KS)	4/6	226,000	239,000	5.75%	• 하반기 유가·곡물가 상승과 중국 돈가 회복에 따른 라이신·핵산 수요 개선 기대 • 4Q25 실적 발표에서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피력
LX인터내셔널 (001120.KS)	4/6	53,100	50,600	-4.71%	• 석탄 가격 강세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트레이딩 마진 확대 기대 • 자원·트레이딩/신성장 부문의 가파른 회복이 예상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리노공업 (058470.KQ)	4/6	110,400	109,700	-0.63%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케이엠더블유 (032500.KQ)	4/6	28,500	26,350	-7.54%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6	14,420	15,640	8.46%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90%	-1.27%p	+55.70%	+25.1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알테오젠 (196170.KQ)	4/6	365,500	362,000	-0.96%	• 4월 J-code 발효에 따른 키트루다 Qlex 처방 확대, 추가 본계약 가능성 • Dapirolizumab pegol 및 Felzartamab 추정하나, LEQEMBI로도 확대 가능
케이엠더블유 (032500.KQ)	4/6	28,500	27,400	-3.86%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193,100	15.4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12,500	4.56%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5,700	4.25%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47,900	4.23%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49,000	4.96%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3,100	11.17%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80,600	12.73%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20,500	2.44%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36,500	14.65%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4/1	128,000	131,200	2.50%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42%	-2.65%p	+28.83%	-0.8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6,045	-11.9%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185	-13.0%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155	-4.8%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810	60.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6.38	0.8%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9.68	30.7%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5.98	16.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3.86	10.4%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5	4.6	4.7	4.8	4.9	4.10	4.11
		▪ 중국 3월 외환보유액 ($3,390.95B, 이전치 $3,427.8B) ▪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E -1.0% 이전치 0.0%)	▪ 한국 2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E--/--, $13,259m/$15,173m) ▪ 일본 2월 BoP 경상수지 (E--, 이전치 ¥941.6b) ▪ 미국 3월 FOMC 회의록	▪ 미국 4월 1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이전치 2.5%) ▪ 미국 3월 CPI (E--, 이전치 2.40%) ▪ 중국 3월 CPI (E--, 이전치 1.30%)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E--/--,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E $111b/13%/15%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